

어느 흐린 날의 행복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소나기가 오겠다.

8월 26일 (음 7월 31일)

광주	24~30°C
주요	24~31°C
여수	24~29°C
완주	23~31°C
구례	24~33°C
남원	22~32°C
장흥	23~31°C
함평	23~31°C
영광	23~32°C
진안	24~32°C
전남	24~32°C
전남	23~31°C

서해남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0.5~1.5m

서해남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먼바다
남동~남서풍
파고 1.0~1.5m

▲해돋이 06:00 ▲해질 19:08
▲달돋이 07:58 ▲달질 20:16

목포 밀물 < 03:40 썰물 < 08:54
여수 밀물 < 10:21 썰물 < 04:09
15:50 21:00 22:34 16:19

날짜	27(일)	28(월)	29(화)	30(수)	31(목)	9/1(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4/28	23/31	23/30	22/29	22/30	23/30

광주·전남 주말 20~80mm 비

8월 들어 세 번째 맞는 주말과 휴일은 흐리고 가끔 비가 올 전망이다. 26일은 한 두 차례 국지적인 소나비가 내리겠지만, 다음날에는 무더위를 식혀줄 막바지 여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이틀 동안 광주·전남에 20~80mm의 비가 내린다"고 25일 예보했다. 26일은 천둥·번개를 동반하고 곳에 따라 강한 돌풍이 불 가능성이 높다. 특히 휴일인 27일에는 우리나라 북쪽을 통과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남에 비해 많은 비가 내린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낮에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상층안데다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수증기가 계속 공급돼 대기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에 최근 광주·전남에 '깜짝 소나비'가 내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25일 광주에는 낮 12시35분부터 강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비가 1시간당 최대 20mm 이상 내렸다. 이로 인해 광주 시내에 설치된 신호등 40여 곳이 고장나 일대를 지나는 차량이 불편을 겪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전남 첫 적조 의심 피해 발생

지난 7일 남해안에 첫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적조 의심 피해가 발생했다.

여수시는 25일 "최근 2~3일 전부터 돌산읍 계동마을 앞 공동어장(살포식)에서 전복 5~6천개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원인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적조 원인생물인 코클로리나눔이 m당 1천~2천여개가 밀집한 적조주의보가 내려진 곳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완도 '괴물'은 '멧돼지'?

'완도 괴물'은 '멧돼지'일까? 완도군은 25일 "군 공무원, 전남 밀렵감시단, 전문연사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해 괴물 출현 소동을 빚은 생일면 생일도를 방문, 현지 확인을 벌인 결과 멧돼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소탕 작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 밀렵감시단 강인소 팀장은 "염소가 죽은 근처에 멧돼지 발자국과 묘지를 활취고 간 흔적이 남아있다"면서 "흔히 멧돼지를 조심 동물로 알고 있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잡식성으로 변해 동물들도 잡아 먹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정확한 실체가 밝혀지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며 불안감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생일도 주민들은 1년 전부터 실체를 알 수 없는 산짐승의 습격을 받아 흑염소 20여 마리가 희생됐고 최근 들어서는 매일 밤 한 마리 이상이 죽어가고 있지만 흔적이 없어 괴물이라 부르며 공포에 떨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S중 비리' 교육감선거 진흙탕 싸움

'납품비리 의혹' 교장 "교육장 압력" 폭로전 선거 2개월 앞두고 비방·헐뜯기 과열 조짐

오는 10월 치러질 광주시교육감 선거가 진흙탕 싸움 조짐을 보이고 있다. 출발점은 지난 3월 개교한 광산구 S중학교 기자재 납품비리 의혹. 이 학교 박 교장이 직접 작성해 관리해온 근무일지가 공개되면서 제기됐다.

박 교장은 "교장으로 첫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미숙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물론 인사청탁이나 외압 등을 일지에 기록했다"며 "근무일지 유출 경위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교장은 그러면서 "지난 3월 윤 교육장이 전화를 걸어와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3명 중 2명을 추천해 부당한 간섭으로 여러 전화를 끊었으나, 과학연구원 A연구사를 통해 추천서를 보내 어쩔 수 없이 지역위원으로 선정했다"고 거듭 밝혔다.

박 교장은 또 "윤 교육장이 지난 1월



윤영월(가운데) 광주서부교육장이 2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을 둘러싼 인사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위권기자 jrwi@kwangju.co.kr

에도 학교 행정보조 요원 채용과 관련, 인사청탁을 해와 B씨를 학교 회계직원으로 채용했다"고 덧붙였다.

윤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 25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한 사실

이 없다"고 반박했다. A연구사는 "모임을 같이하고 있는 박 교장이 부탁해 2명으로 추천했음을"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선거 앞두고 '폭로전'서막 의혹=윤 교육장은 25일 "(박 교장이 주장하는 인사청탁 등)을 1월이나 3월



소나기를 뚫고... 25일 낮 갑작스런 소나비와 함께 날이 어두워져 자동차들이 전조등을 켜고 달리고 있다. 이날 광주에는 오후 7시 현재까지 104mm의 비가 내렸다. /위권기자 jrwi@kwangju.co.kr

복포 앞바다 은빛갈치떼 ... 강태공 '불야성'

'은빛 갈치가 돌아 왔다' 선상 갈치 낚시를 즐기려는 강태공들이 복포 앞바다로 몰리고 있다.

25일 목포 프로낚시 등 업계에 따르면 이날 초부터 시작된 선상 갈치 낚시가 최근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영암 삼호방조제와 목포 영산강하구둑 인근 평화광장 앞바다에는 수만 마리 갈치가 몰려들어 낚시객들이 밤바다를 환하게 밝히고 있다.

인천, 대진, 광주 등지에서 온 강태

삼호방조제·영산강 하구둑 낚시어선 100여척 '불거리'

1인당 30~40마리는 거뜰

공들은 하룻밤에 40~50cm 크기의 갈치 30~40마리를 잡아 즉석에서 회를 때 먹으며 짜릿한 손맛과 감칠맛 나는 입맛을 동시에 만끽하고 있다.

목포 프로낚시 김영길(43) 사장은

"2~3년 전부터 본격 시작된 목포 갈치 낚시가 새로운 볼거리이자 즐길거리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며 "전국에서 몰려든 낚시꾼들이 반짝이는 은빛의 갈치를 낚으며 환호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오는 9월 9일~10일 평화광장 앞 바다 등에서 '제4회 목포사랑 은빛 갈치축제'를 개최한다고 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구례 거소투표 부정사건 '몸통' 밝혀지나

경찰 "공무원 5~6명 관여"

특정후보 사조직동원 확인

지난 5·31 지방 선거 당시 70명의 이장이 연루돼 파문을 일으켰던 구례의 거소투표(居所投票) 부정 사건과 관련, 사건을 주도한 '몸통'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25일 구례경찰에 따르면 지난 5·31 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 부정 사건과 관련, 구례군 이장단 150명 중 거소투표자를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이장 9명을 구속하고, 5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인척인 이장 1명은 도주해 사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상대다.

경찰은 한 자치단체에서 이처럼 많은 거소 투표 부정 사례가 적발되기는 처음이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조직적으로 이장들을 동원, 불법 선거를 자행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공무원 5~6명이 이번 거소 투표 부정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A씨의 친목 모임 회원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따라 사상 최대의 거소 투표 부정 사건에 공무원은 물론 특정후보의 사조직이 모두 동원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금품수수' 지점장 구속 관련 광주 농협본부 압수수색

광주의 한 농협 지점장이 하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이 최근 광주 농협본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동부경찰은 25일 "전날 오전 10시30분경 경찰 5명이 광주 농협본부를 압수수색해 사과박스 4개 분량의 문서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농협 관계자들의 내부비리 정황을 포착, 23일 법원으로 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후 현재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는 포착하지 않은 상태지만 농협의 내부비리 사건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고 말한 후 "이번 농협 지점장 구속 사건과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리베이트 의혹 S중학교 경찰, 장부 등 자료 분석

전남지방경찰청은 광주시 광산구 S중학교의 학교 기자재 및 급식 납품 업체 선정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 25일 해당 학교에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자료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조만간 S중학교에 기자재와 급식을 납품한 업체의 관련 자료 등도 압수하는 한편 박도 교장과 윤도 실장, 업체 관계자, 서부교육청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리베이트 명목으로 오간 돈이 교육청 고위 관리들에게 전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현섭 여수시장 벌금 80만원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구길선 부장판사)는 25일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오현섭(56) 여수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최모(53)씨 등 3명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통상적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사전 선거운동을 해 깨끗해야 할 선거 분위기를 해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관련법에 무죄였던 점, 정치 신인의 경우 자신을 홍보할 기회가 적은 점 등을 참작,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아폴로 눈병' 주의보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전국 80개 안과를 중심으로 안과전염병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아폴로 눈병 등 유행성 눈병이 유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개학을 맞아 전염력이 강한 눈병이 학교내에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눈병에 걸리지 않도록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부는 '유행성 눈병 주의 사항'을 담은 포스터 1만2천부를 제작,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주요 안과의원 등에 배포기로 했다.

유행성 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누를 사용해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고 수건이나 냇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며 눈에 부종이나 충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즉각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측 설명이다.

일단 눈병에 걸리게 되면 2차 감염이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안과 치료를 받아야 하며 약 2주간의 전염 기간에는 눈이방과 유치원, 학교 등을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국정원, 국보법 위반혐의 전 민노당 당직자 조사중

국가정보원 광주지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당직자 A씨를 불합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에 광주시 서구 중앙동 자신의 아파트에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북한 원전이 수목된 CD와 북한 서적 등을 다수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밖에 광주·전남 청년단체협의회(남청)와 민족민주 청년회 등 각종 지역 사회단체들을 통해 학생, 직장인들과 활발한 접촉을 해 왔으며 북한측과의 접촉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해 조사중인 것으로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섬 보건소장 옆구리 통증 긴급후송

○~섬에 근무하는 30대 보건진료소장이 옆구리 통증이 심한데도 정작 자신을 돌봐줄 의사가 없어 해경이 제트보트 등을 동원해 육지로 긴급 후송.

○~25일 완도해양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30분경 완도군 약산해동 보건진료소 정모(·여·35) 소장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가 접수돼 정소장을 동원, 1시간만에 정소장을 긴급 마량항까지 옮긴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차에 인계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는 것.

○해경 관계자는 "섬에서는 소규모 보건진료소나 간이 진료소가 의료기관의 전부다 보니 진료소장이 아플 경우 먼 길을 돌아 육지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